저와 탱고 한번 추실래요

광주 탱고

매주 금요일 '와인 바'서 원 스텝 투 스텝

두달 익히면 '밀롱가 파티' 다닐수 있어

'정열의 춤 그리고 명상의 춤 탱고'

영화 '여인의 향기'에서 알파치노는 "인생과 달리 탱고는 실수라는 게 없죠. 실수를 해서 스텝이 엉키면 그게 바로 탱고죠"라는 대사를 날리며 많은 영화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앞을 보이지 못하는 퇴역 장교 알파치노는 'Por Una Cabeza'의 매혹적인 선율에 맞춰 멋진 아가씨 도나와 탱고 춤을 추면서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을 연출했다.

'여인의 향기'는 탱고의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며 탱고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 영화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탱고의 매력에 빠져 지내는 이들이 있다. 매주 금요일 일상에서 벗어나 힘찬 탱고 선율에 맞춰 스텝을 밟는 '광주탱고'(http://cafe.daum.net/tangobang) 회원들이 그 주인공이다.

탱고는 19세기 말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시작돼 이민자들의 힘든 삶의 애환을 달래주는 춤으로 발전했다. 1930~40년대 황금기를 맞은 탱고는 하층민의 춤이라 배척 받기고 했지만, 유럽 상류층의 사랑 속에 다시 본토의 귀족 문화로 상륙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초부터 자리 잡기 시작해 전국적으로 수십 여개의 동호회가 결성됐다. 광주에서도 4~5년 전부터 탱고인들이 활동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은 낯선 문화라는 인식이 강하다. 회원들은 광주가 '예향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보수 적인 면이 있어 아직 탱고 문화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말한다. 회원들은 더 많은 이들이 탱고의 문화를 접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

5년 전 탱고를 접한 조순(38)씨는 영화 속 장면의 주인공이 된 듯한 전율에 탱고의 매력에 빠졌다. "탱고를 추고 있을 때 만큼은 어떤 다른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로 파트너와의 일체감을 느끼며, 음악에 몰입하게 됩니다. 음악을 해석하면서 나를 표현하는 것에 커다란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탱고의 핵심은 '걷기'다. 홀로 걷는 게 아니라 상대와 함께 걸음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그만큼 상대에 따라 다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색을 가진 춤이다. 이런 탱고 특성상 같은 곡으로 같은 파트너와 추더라도 매번 색다른 분위기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듣는 게 아니라 해석한다'고 표현 하는 풍부한 감성의 탱고 음악을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는 것도 탱고의 끝이 없는 매력이기도 하다.

새로운 외국 클럽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김경훈씨는 지금은 신입회원의 탱고입문을 돕는 역할을 하며 탱고 문화에 흠뻑 빠졌다. 김씨는"우연한 기회에 외국인 친구의 소개로 탱고를 시작했다"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삶이 풍성해진 느낌이다"고 말한다.

회원들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때문에 흔히 탱고를 정열적인 관객을 위한 춤이라고 하지만 사실 파트너와 자신을 위한 춤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말한다. 파트너의 리드에 집중해 음악을 들으며 같이 걸어야 하는 만큼 파트너와 음악에 집중하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고, 표현해 낼 수도 없는 춤이라는 게 회원들의 설명이다.

탱고 레슨은 동호회에서 품앗이 형태로 이루어진다. 앞서 탱고를 시작한 선배들이 신입 회원들에게 전수를 해주는 형태로 교육이 진행된다. 두 달 정도 익히게 되면 밀롱가(4분의 2박자의 탱고음악 혹은 탱고를 즐기는 공간을 뜻한다) 파티를 다닐 수 있는 정도가 된다.

탱고에 입문한 지 이제 두 달째가 되는 전태영 씨는 "흔히 반복되는 동작이 아니라 탱고를 추는 두 사람 사이에 세상이 흐르는 것처럼 보여 첫눈에 탱고에 반했다"며 "상대와의 소통과 내면의 여행을 위한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며 탱고의 매력에 대해 설명했다.

임성환(28) 씨는 "사랑하는 이가 생기면 탱고 한 곡을 춰줄 수 있는 멋진 파트너가 되고 싶다"며 탱고를 배우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본토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생활의 일부로 즐기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30~40대가 주가 되어 동호회 형태의 탱고 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광주탱고'의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30~40대 직장인이 대부분이지만 20대의 막내도 동호회 활동에 열심이다.

동호회 막내 이은희(여·22)씨는 "탱고를 통해 남녀노소 구분없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좋다"며 "탱고라는 새로운 문화를 통해 색다른 유대감을 키우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밀롱가 파티가 열리기 때문에 회원들은 다른 지역을 방문해 새로운 사람들과 탱고를 즐기기도 한다. 파티에 나설 때는 한껏 맵시 있는 옷을 차려입고 진짜 영화 주인공이 된듯한 기분을 만끽하기도 한다.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풀고 삶의 활력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소경미(여·40)씨는 "탱고를 출때 발 아래에서 부터 전해져 오는 근사란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이런 기분을 함께 느끼는 가족같은 회원들과의 교류도 나에게는 큰 재산이다"고 말한다.

자유 분방한 듯한 탱고는 점잖고 품격있는 춤으로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 구두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탱고를 추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것으로 복장에 신경을 써야한다. 그리고 한 파트너와 3곡 이상을 추는 것도 에티켓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다. 여러 사람과 탱고를 즐기기 위해 모이는 밀롱가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관례이자, 탱고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된 기본 룰 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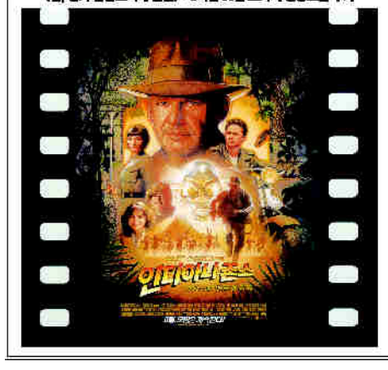
'광주탱고'의 소경미(40·사진 왼쪽)씨와 임성환(28)씨가 탱고 음악이 끝난 뒤 마무리 자세를 취하고 있다.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Happy Time 영화안내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약국사거리 ♡예매1544-0600

M관	인디아나 존스 (12세)	최고급관
2관	인디아나 존스 (12세)	
3관	88분 (15세)	
4관	위 오운 더 나잇 (18세)	
5관	아이언 맨(12세)/깃파쿠와 여름방학을 (전체)	
6관	라스베가스에서만생길수있는일 (15세) /바디 (15세)/방울토마토 (12세)	
7관	나니아연대기 (전체)	
8관	페넬로피 (12세)/겟썸 (12세)	
9관	방울토마토 (12세) / 라스베가스에서만생길수있는일 (15세)	

영화 한편 아수하면 경품과 혜택이 쏟아진다!(~2008.06.31)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엔터 시네마
총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라스베가스에서만생길수있는일 (18세)
2관	호튼 (전체) / 추격자 (18세)
3관	포비든킹덤(12세)/가루지기 (18세)
4관	스피드레이서 (12세)
5관	아이언맨 (12세)
6관	테이큰 (18세)
7관	나니아연대기 (전체)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한 옥내·옥외 주차장 300대 • ⊛금,토 심야상영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황토사랑 영화사랑 • 예매: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하남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뒷편)

1관	라스베가스에서만생길수있는일 (12세)
2관	위 오운 더 나잇 (18세)
3관	인디아나존스 (12세)
4관	인디아나존스 (12세)
5관	방울토마토 (12세)/겟썸(12세)
6관	명탐정코난 (12세)/아이언맨 (12세)
7관	인디아나존스 (12세)
8관	88분 (15세)
9관	나니아연대기 (12세)
10관	인디아나존스 (12세)

*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하남점(10계단) 절찬리 상영중
상담원연결 방법 →(1번 or 2번)→0번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1544-0070
씨너스 전대
복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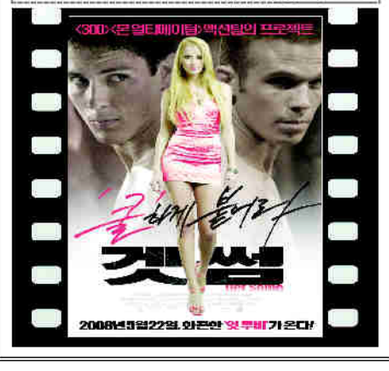
1관	나니아연대기 (전체)
2관	겟썸 (12세) / 아이언맨 (12세)
3관	라스베가스에서만생길수있는일 (15세)
4관	88분 (15세)
5관	페넬로피 (12세) / 바디 (15세)
6관	인디아나존스4 (12세)
7관	인디아나존스4 (12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녹차 시우나(오전5시~오후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고객사랑 고객감동 • www.hamicinema.co.kr/ 1588-9120
하미 시네마
전대후문 하미스포렉스 ☎ 267-7777

1관	호튼 (전체)
2관	인디아나 존스 (전체)
3관	겟썸 (12세)
4관	스피드레이서 (12세)
5관	인디아나존스 (전체)
6관	테이큰 (18세)
7관	방울토마토 (12세)
8관	라스베가스에서만생길수있는일 (15세)
9관	아이언 맨 (12세)
10관	나니아연대기 (전체)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무료) * 365 매일 심야
* 이동 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영장 269-5757 * 하미 볼링장 262-0925
* 하미 골프장 251-5060 * 영빈관 예식장 261-2000



새롭은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ilcinema.co.kr •
제 일 시네마
총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인디아나 존스 (전체)
2관	인디아나 존스 (전체)
3관	아이언 맨 (12세)
4관	라스베가스에서만생길수있는일 (15세)
5관	겟썸 (12세)
6관	나니아연대기 (전체)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